주간 북한관광 동향 보고
(2016. 5. 03 – 2016. 5. 09)

1 북한 정책, 법규, 경제, 사회, 문화 동향

□ 北 **전국에 80여개 주유소…최근 평양-남포 고속도로에 신설**(노컷뉴스, 2016.05.09)

○ 북한에는 82개로 추정되는 주유소가 평양시내와 외곽, 각도 소재지에 있는 가운데 최근 평양과 남포를 잇는 고속도로 옆에도 새 주유소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음.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산하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지난 2월2일 미국의 상업위성이 촬영한 북한 남포시 대안군의 평양과 남포를 잇는 고속도로 옆에 새 원유판매소가 지어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음. 멜빈 연구원은 "이 주유소는 2011년부터 진행된 평양-남포고속도로 보수 공사의 하나로 만들어졌으며, 위성사진을 보면 현재 주유소는 운영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음.

http://www.nocutnews.co.kr/news/4589904

□ 北 **제7차 노동당 대회 개막… '김정은 시대' 선포 공식화**(컨슈머타임스, 2016.05.06)

○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가 6일 개막했음'김정은 시대'의 선포를 공식화했음. BBC와 CNN 등 외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날 오전 행사장인 4·25 문화회관에 입장한 이후 현재 당 대회 첫날 회의가 진행 중임. 36년 만에 개막한 7차 당 대회는 9일께 폐막할 예정임. 김 제1위원장은 이날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김일성·김정일의 업적을 칭송한 후 자신의 집권기 치적을 과시하고 정책노선을 밝혔을 것으로 보임. 당 대회 2일 차에는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와 당규약 개정 토의, 결정서 채택이 진행될 예정임. 3일 차에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 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 선거가 열릴 것으로 추정됨.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030

□ **북한 고려항공, 태국 방콕 노선 중단한 듯**(미국의소리, 2016.05.04)

○ 태국 방콕 수완나폼공항의 웹사이트는 현지 시간으로 4일 도착 예정인 북한의 고려항공 편이 '결항' 됐다고 표기했음. 출발 예정 항공편을 보여주는 페이지에서도 고려항공 옆에는 결항을 의미하는 '취소(cancelled)'가 빨간 색으로 적혀 있음. 매주 평양과 방콕을 정기 운항했던 고려항공 JS 253편이 도착하지 않았고, 이로써 출발 편인 JS 254편도 자동 취소된 것임. 해당 항공편의 중간 경유지인 중국 선양공항 웹사이트에서도 고려항공의 도착과 출발 기록은 없었습니다. 지난주를 끝으로 고려항공의 선양-방콕 정기운항 노선이 중단된 것이 사실상 확인된 것임.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3313905.html

2 북한 관광산업 관련 동향

□ **유엔제재 두 달…中여행사들, 北관광상품 폐기**(OBS NEWS, 2016.05.03)

○ 북한과 중국 접경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북한 관광상품을 판매해온 중국 여행사 대부분이 북한 관광상품을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음. 3일 북중접경 중국 여행업계에 따르면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 신의주 일대 하루짜리 방문 상품을 비롯해 3박4일 일정의 평양~개성~묘향산~판문점 북측지역 순례 상품 등을 판매해온 여행사 45곳이 최근 북한관광상품 판매를 중지했음. 이들 접경지역 여행사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대응해 지난 3월 3일부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시행될 당시 북한 관광상품을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팔아온 곳들임.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8584

□ **'북한 관광' 에도 대북 제재 여파**(자유아시아방송, 2016.05.03)

○ 미국에서 북한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뉴코리아 투어스'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2016년 들어 관광을 신청한 여행자가 예년에 비해 40% 넘게 감소했다면서 한반도 긴장 상태의 영향이 있음을 설명했음. '뉴코리아 투어스'는 북한의 도발과 긴장 국면이 계속되고 언론들이

이에 대한 보도를 계속 하자, 여행객들도 이로 인해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음. 이 밖에도 익명을 요구한 유럽의 한 여행사도 최근 북한 관광이 안전한 지에 대한 문의가 더욱 많이 오고 있다면서, 관광 취소를 신청해오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전했음.

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tourist-05032016160827.html?searchterm:utf8:ustring=%EB%B6%81%ED%95%9C+%EA%B4%80%EA%B4%91

3 DMZ 관광 및 접경지역 관광산업 관련 동향

□ **'DMZ를 자전거로 질주한다'…경기도-강원도 손잡고 '자전거 퍼레이드' 개최**(중부일보, 2016.05.09)

○ 경기도와 강원도가 오는 28일 연천~강원도 철원 간 62㎞를 달리는 '2016 투르 드 디엠지(Tour de DMZ) 자전거 퍼레이드' 행사를 개최함. 올해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28일 오전 9시30분 철원 DMZ평화문화광장을 출발해 경원선 백마고지역, 신탄리역, 대광리역을 지나 연천 공설운동장을 반환점으로 다시 철원으로 돌아오는 왕복 코스에서 펼쳐짐. 행사에서 5사단과 6사단 군악대 공연, 치어리딩, 인기가수 초청공연 등 부대행사도 열림.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70501

4 기타 동향

□ **'러시아 연해주-북한 두만강' 철도 물동량 급감**(미국의소리, 2016.05.07)

○ 러시아 연해주 지역과 북한 두만강 유역을 연결하는 철도로 운송된 화물의 양이 2016년 들어 크게 줄었음. 러시아 교통전문지 '구독'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러시아 하산과 북한 두만강역을 잇는 철도를 이용해 실어나른 화물의 양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25% 줄어들었다고 최근 보도했음. 이 노선은 북한 두만강역을 통과해 라진까지 이어짐. 보도에 따르면 이 기간 해당 노선을 통해 운송된 화물량은 약 44만t이었음.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5만t 정도 줄어든 규

모임. 러시아 하산-북한 두만강역 노선은 러시아 연해주와 중국, 북한을 잇는 국제 철도 노선 가운데 하나임. 현재 러시아 극동철도청은 하산-두만강역 노선 외에 그로데코보-중국 쑤이펀허 노선, 그리고 마할리노-중국 훈춘 노선을 운용하고 있음.

http://www.voakorea.com/a/3318761.html

□ **러, 대북 금융거래 동결…북한산 광물 수입 중단**(서울신문, 2016.05.06)

○ 러시아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 금융거래를 전면 동결하고 북한산 광물 수입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음. 인테르팍스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 초안이 최근 러시아 연방정부 사이트에 게재됐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07003019

□ **올 1분기 미-북 교역, 사실상 전무**(미국의소리, 2016.05.06)

○ 2016년 1월과 3월 사이 미국과 북한의 교역액이 사실상 전무를 기록했음. 최근 발표된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북 교역액은 약 2만 달러에 불과했음. 미-북 교역은 2월에 이어 3월에도 전혀 없었음. 이 같은 수치는 2015년 1분기 교역액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그나마 전액 미국의 대북 수출이었음. 2016년 1분기 미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물품은 의료기기로 이는 정식 교역 품목이 아닌 민간 지원품으로 추정됨.

http://www.voakorea.com/a/3317203.html

붙임 **북한 7차 노동당 대회 관련 보고**

□ 과거 노동당대회 개최 현황

차수	개최기간	주요내용	비고
1차 당대회	**'46.08.28-30**	**▪ 당 창립, 당 강령·규약·기관지 보고 등**	
2차 당대회	**'48.03.27-30**	**▪ 당규약 수정 등**	
3차 당대회	**'56.04.23-29**	**▪ 인민경제발전 1차 5개년 개획(57~61년)**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채택 등**	
1차 당대표자회	'58.03.03-06	▪ 소련·연안파 숙청 등	
4차 당대회	**'61.09.11-18**	**▪ 인민경제발전 7개년계획('61~'67) 등**	
2차 당대표자회	'66.10.05-12	▪ 국방·경제 병진정책 채택 ▪ 인민경제발전 7개년계획 3년 연장 ▪ 당 총비서제 채택 등	
5차 당대회	**'70.11.02-13**	**▪ 인민경제발전 6개년계획('71~'76) 등**	
6차 당대회	**'80.10.10-14**	**▪ 사회주의 경제건설 10대 목표** **▪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창립방안** **▪ 김정일 당 정치국 상무위원 선출 등**	
3차 당대표자회	'10.09.28	▪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등	
4차 당대표자회	'12.04.11	▪ 김정은 당 제1비서 추대 등	

□ 7차 노동당대회

○ 개최기간 : '16.05.06-09

○ 주요내용 : 핵-경제 병진노선 채택, 김정은 최고수위 추대 등

- 김정은을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당 정치국 상무위원 선출 (3명→5명, 김정은,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년~2020년) 제시
-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 세계 비핵화 실현 및 자위적 핵무력 강화 선언
-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 다할 것

□ 향후 남북관계 전망

○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천명한 이상, 핵미사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

○ 우리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가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